

마이클 린치의 이성예찬 혹은 이성을 위한 변명

박 배 형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감성과 상상력이 높이 평가되는 시대에 “이성예찬”이라니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책 제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이 한 철학자의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흔히 철학자들은 세태의 대세에 그저 무반성적으로 몸을 맡기기보다는,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명 의식으로 인해 또 그들의 신념에 따라 혼자서라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종종 자신이 속한 사회나 국가로부터 배척받아 도피하는 처지에 이르기도 하고, 이단으로 몰려 박해를 받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던가? 철학사의 획기적인 장면들의 주인공들이었던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 지오르다노 브루노, 소크라테스 등등의 예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이클 린치 교수(이하 ‘저자’)의 『이성예찬』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를 전복하겠다는 거창하고도 야심찬 시도로서 내던져진 도전장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시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성에 대한 회의가 또는 냉소가 만연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시대를 향해 내놓은

그의 책을 간단히 특징짓자면 그것은 이성에 대한 “온건한” 옹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잔잔하지만 힘 있는 필치로 오늘날처럼 이성의 지위가 위태로운 시대에서 왜 여전히 그것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 왜 이성이 여전히 요청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성 옹호가 “온건한” 이유는 그가 대표적인 이성중심주의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성을 옹호한다는 점에 있다. 즉 그는 이성을 절대적 우위에 두고 인간의 다른 능력들을 저급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감정이나 감각, 직관, 감성적인 욕구들의 가치도 역시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성이 중요한지를 역설한다.

저자가 대표적인 이성중심주의자의 예로 들고 있는 플라톤은 그의 대화편 『국가』 제4권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그는 인간의 영혼이 이성, 욕구, 기개(패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욕구라고 불리는 부분은 이성과 상반되거나 이성이 아닌 것으로서의 온갖 욕망, 감정, 감각 등이 다 포함된 매우 복합적인 부분이다. 플라톤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건전하고 조화로우려면 영혼 전체를 헤아릴 줄 아는 부분이 이 전체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듯 영혼 전체를 헤아릴 줄 아는 부분이란 그에게는 -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 이성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욕구가 열정과 비이성적 본능 등과 섞여서 그것의 충족을 위해 끝없이 우리 자신을 몰아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욕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올바른 삶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게다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감정과 감각이 이성에 비해 왜 열등하며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지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한다. 가히 그는 이성지상주의자라 불릴 만하다. 『국가』 제10권에서 이른바 ‘시인 추방론’을 역설할 때에도 그가 내세우는

논저 중의 하나는 시인 또는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이란 인간 영혼의 비이성적인 욕구 부분을 강화시켜서 영혼 내에 건전한 통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구상하는 이상국가에는 이렇듯 시민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예술가들이 있을 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예술이 과연 이런 역할만을 하는지는 플라톤 이래로 숭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것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예술에 관한 논의에서도 역시 그의 이성중심주의는 어김없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플라톤의 이성중심주의에 맞서 있는, 거의 대척점에 서 있는 철학자는 근대의 대표적 회의주의자 데이비드 흄이다. 그는 회의주의자답게 확실하고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것에 의심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의 획득에 기여한다고 여겨져 온 이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도대체 합리적 사고에 지배된다는 식의 견해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는 인간의 이성이 정념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을 행동으로 이끄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며, 우리의 목적을 정하는 것도 이성이 아니라 정념이다. 이성적 숙고라는 것은 단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정하는 데에 기여할 뿐이다. 그렇기에 정념이 또는 욕망이 없다면 인간의 이성은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흄은 확실히 감정을 이성 위에 올려놓은 것이고 그 점에서 플라톤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사실상 서양에서 플라톤 식의 이성중심주의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주류 사상을 거의 지배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감정을 이성에 앞세우고 감각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경험주의자 흄은 이런 이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이지만 그도 이성중심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이성중심주의가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으며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또 현실적으로 이성

에 대한 회의주의적 태도 또는 혐의 입장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이성중심주의가 꼭 대단히 억지스러운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인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런 인식의 특징으로 보편성과 필연성을 상정한다면, 감정이나 감각에 기초하여 이런 인식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종종 나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기 위해 특별한 통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우며, 또 이 감정이란 것의 개인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런 감정이나 어떤 느낌에 따라 무엇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그 앎이 참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은 어느 순간의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확실할 수는 없으며 결국 신뢰할 만하지 않다.

우리가 종종 이성의 권위에 회의를 품게 되는 이유는, 또 감정이나 감성적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대개 우리가 일상에서 이 후자의 차원, 즉 감성적 차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듯이 보인다는 데에 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정의가 무색할 정도로, 또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경제이론의 주된 전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감성적 측면을 중시할 때가 적지 않다. 예컨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저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느낌이 우리의 행동이나 발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에는 그 말의 진위보다도 “기분”이 나쁘다는 것, 즉 감정이 상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항상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 가르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 인간이란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양식을 예로 들어보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를테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여 그 만족의 최대치에 이를 수 있는 선택을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란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또 그렇게 가정을 해야만 소비행동에 대해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소비행동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소비생활이란 어떠한가? 즉흥적으로 물건을 사는 일도 종종 발생하며, 백화점 세일이라 하여 이것저것 마구 물품을 샀다가 후회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지 않던가? 게다가 경제적 소비를 위해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충분히 숙고를 하고 구매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또는 내 맘에 딱 맞는 물건을 만났을 때 가격과 아무 상관없이 지갑을 여는 경우도 있지 않던가? 도대체 인간을 이성적이며 또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존재라고 하는 가정이 이 경우엔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전혀 합리적일 리가 없는 과소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방송매체는 그런 과소비를 조장하지 않던가? 티브이만 켜면 나오는, 심지어 드라마 방영 중간에도 등장하는 광고방송들을 상기해 보자. 그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를 부추기려 하는데, 이때 광고의 전략이란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에 교묘히 작용하여 팔고자 하는 상품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실제로 충분히 이성적인 존재라면 광고전략 또한 이성적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예를 들어 신제품의 품질을 소개하고 설명하며,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주고 왜 이 제품이 좋으며 필요한지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일단 잘생긴 연예인이 출연하여 마음을 홀리고, 음악과 시각적 자극 및 분위기의 연출을 통해 그 신제품을 사면 나에게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또는 내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이성적이기보다는 비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겨냥한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듯 충분히 비이성적이기도 한 인간의 면모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이성의 이름으로 억누르는 방식에 반대한다. 이런 방식이 야말로 이성절대주의자의 방식일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의 이성예찬은 감성 또는 감정과 이성이 공존하되, 이성이 어떤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며 또 어떤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주장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사실상 그의 기본적 입장은 이성이 판단과 결정의 “무대”에서 “유일한 스타”가 아니며, 비이성적이라 불리는 “감정”이나 “직관과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것이며(78쪽), 또 그렇긴 하지만 “이성이 건강한 시민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28쪽).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과 비이성적인 측면 모두가 존중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공적이고 정치적인 삶에서 이성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또 그런 관점에서 이성을 옹호하고자 한다.

그가 이성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본성적으로 얼마나 이성적인가를 따지고, 그에 입각하여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방식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것을 경시할 때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를 서술하고, 이렇듯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는 인간에게 구비된 본성적인 능력으로서의 이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인정과 존중의 필요성을 우리가 수긍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필요성에 대한 그의 주장이 지니는 논리와 우리의 수긍 자체가 이미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우리 인간의 사고능력으로 인해 가능한 것임이 같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성이 무시될 때, 또 그것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만연하게 될 때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이 사태란 아마도 여러 가지 양태로 묘사될 수 있겠지만, 저자는 이를 우리의 정치적 삶과 관련하여,

또는 민주주의적인 정치공동체의 삶과 관련하여 묘사하고 설명한다. 민주주의는 대화 또는 토론과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삼는다. 물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논쟁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상호인정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서로를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성적인 수단을 통해,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바로 이성을 전제하고 또 신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협에 처하거나 또는 아예 성립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이성이 움직이는 공간이며, 또 그래야 한다”(35쪽).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하거나 성립될 수 없는 사태란 이성이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사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의 주장을 합리적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인정치 않거나, 이미 정치권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의 이성적인 주장을 감정에 입각하여 멋대로 또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취급해버리는 사태이다.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권력의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상호 비방과 궤변을 일삼게 되는 사태이다. 그러니까 이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기대될 수 없다. 그렇기에 그는 이성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핵심 강령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38쪽).

이렇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 사는 우리는 국회가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을 벌이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정부 또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기를 기대하며 또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

서 작동하는 이성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이러한 이성의 역할,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이성의 중심적인 지위,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이성의 중요성에 대해 별 의심을 품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저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그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으나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에 인문학계에서 그 위세를 떨쳤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학계에서 성장한 그의 경험과 관련된 것인데, 한국에 불어 닥친 포스트모더니즘의 열풍은 20세기를 넘어서도 계속되었었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하나의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철학적, 문화적 운동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흐름이 결합되고 교차된 운동이어서 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일종의 반이성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이의를 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그들의 이론적 활동의 모범으로 흔히 거론했던 철학자는 위대한 비합리주의자 니체였다. 어쨌든 포스트모더니즘은 보편성과 객관적 진리라는 것 그리고 이성중심주의에 반기를 들었던 운동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운동을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한, 근대 이후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한다(27-28쪽). 그리고 그는 이러한 비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또 그러한 운동이 지녔던 가치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양에서 계몽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근대 이후의 문화적 양태가 이성을 우위에 두고 감정이나 감성적 욕구와 같은 비합리적 차원을 억압한 성격을 지녔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학문적 활동이나 문화의 전반적 성격은 수학적 합리성 내지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식으로 틀지어졌고, 그에 따라 세계를 기계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근대적 합리주의의 불충분성 내지는 편협성에 대한 반발은 사실상 서양철학 내에서 이미 생철학이나 실존주의와 같은 형태로 구체

화되기도 했었다. 저자는 이러한 선구적 운동과 연관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운동이 가져온 결과로서의 이성에 대한 회의론과 대안의 미흡성에 대해서는 준엄한 일침을 가하면서,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철학적 잘못”인 동시에 “정치적인 잘못”이라고 주장한다(276쪽). 그리고 아마도 그러한 잘못 때문인지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은 활력을 잃고 학계와 문화계의 뒤편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간략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한국의 인문학계에서 수입하고 유통시켰던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적 전개양상과 그것의 파급효과이다. 우선, 앞에서 말한 바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러한 운동을 수용했던 20세기 후반의 한국사회가 도대체 계몽적 합리주의의 일방적인 주도로 인한 감성의 억압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합리주의적이었던가? 차라리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충분히 합리주의적이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여러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 않은가? 또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보아, 이성에 대한 불신 그리고 보편성과 객관적 진리에 대한 회의와 거부는 건전한 토론풍토의 조성을 방해했고, 이러한 토론과 논리적 정당화 그리고 보편성에 입각한 인간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해서만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을 터인 인문학이라는 나무는 그 시기에 혹시 가지와 잎사귀만 무성한 채 거목으로 자라나지도 알찬 열매를 맺지도 못한 것은 아니었던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외쳐대던 개별성과 차이를 그리고 상대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보편성과 무관한 개별성이 어디 있으며 동일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차이가 어디 있는가? 여하튼 한국사회의 실정에 잘 부합하지 않았던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대적 수용은 그것의 신선함이 떨

어지고 그것의 화려한 빛깔이 퇴색해가자 더 이상의 활력과 생동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높다란 파도는 물러갔지만 그것이 남긴 자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남긴 모든 자취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의 자취를 모아 재평가하고 그러한 파고의 원인까지 헤아려 인문학 발전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 인문학계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방향설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식을 더 예리하게 다듬고 또한 이런 문제의식을 사회적 현실과 접목시키는 데에 있어 마이클 린치의 책 『이성예찬』은 계발적일 뿐 아니라 시의적이기도 하다.

저자의 주장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 하나는 그가 전통적인 이성중심주의자들이나 비합리주의자들과는 달리 이성과 감정 또는 감정이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엮여”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67쪽). 그러니까 그는 이성과 감성은 분리된 채로 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또 연관을 맺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료하고도 적절한 설명이나 이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이론을 구상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작업 자체가 지극히 난해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대로 인간이 또는 인간의 마음이 감성과 이성의 두 부분으로 조각난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일단 구별된 두 부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양자를 연관시켜 동시에 통일적인 성격을 유지해나가는지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감성과 이성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 오락가락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일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또 산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간이란 본래 일종의 정신 분열적인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 상태가 항시 존재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 인간 개개인은 한 개체로서 늘 그 정신적 면에서 또는 심리적인 면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향해 나간다. 그렇다면 감성과 이성이 도대체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또 일단 분리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결합함으로써, 인간이라는 한 개체가 그 통일성을 보존하고 하나의 개체로서 삶을 지속하는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성예찬』이 말 그대로 이성에 대한 예찬이면서 그 옹호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통일성에 대한 설명은 이 책의 과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저자가 감성과 이성이 서로 완전히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는다는 것까지는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통일성의 측면에까지는 논의를 발전시키지 않은 것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